임실N치즈 통합물류 경쟁력 강화

임실엔치즈클러스터·목장형 유가공업체 대표 등 상생발전 협의회 열고 협력 뜻 모아

대한민국 치즈의 발상지 임실군의 임실엔클러스터사업단이 임실N치즈의 통합물류시스템을 통해 압도적 경쟁력을 과시하고 있다.

특히 임실엔치즈클러스터는 임실치즈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지역업체 간 동반성장을 위해 상생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등 임실치즈 산업 전체를 이끌 주도적 조직으로 이끌어 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군은 치즈농협 판매장 회의실에서 한득수 임실군수 주재로 (사)임실엔치즈클러스터 관계자와 관내 목장형 유가공업체대표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실N치즈 상생발전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민선9기 출범을 계기로 임실치즈 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고 생산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동시에 임실치즈의 생산·가공·유통·판매가 지역안에서 선순환하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실엔치즈클러스터는 관내에서 생산되는 치즈와 유제품의 공동 유통·판매를 통해 개별 업체의 판로 한계를 보완하고, '임실N치즈'라는 공동 브랜드의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통합물류와 판매처의 매출을 합산한 실적이 지난해 89억4천만원을 기록한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만 50억 5천만원을 넘어서는 등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임실엔치즈클러스터 치즈 제품

이는 개별 목장형 유가공업체의 제품 경쟁력에 더해 공동 브랜드와 통합물류·판매망을 통한 규모화가 임실치즈의 시장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참석자들은 임실치즈 산업의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임실엔치즈클러스터와 목장형 유가공업체 간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낙농과 유제품 생산을 동시에 수행하는 목장형 유가공업체들이 겪고있는 만성적인 일손부족과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생산 현장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을 집중 논의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클러스터 운영과제에서 적용되는 수수료율 체계의 합리적인 조정, 관내 유가공업체의 제품을 함께 알리는 공동 마케팅, 통합물류를 활용한 물류비 절감 및 유통 효율화등이 논의됐다.

클러스터를 통해 창출되는 유통·판매 성과가 개별업체의 성장으로 이어지고, 다시 우수한 제품생산과 브랜드 경쟁력 강화로 연결되는 상생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군은 앞으로도 임실엔치즈클러스터를 중심으로 관내 목장형 유가공업체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공동마케팅과 판로확대, 물류 효율화 등 실질적인 상생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통해 개별업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임실N치즈'라는 공동브랜드의 가치를 키워 생산자와 가공업체, 유통조직이 함께 성장하는 지역 치즈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 바이오기업 중국 진출 논의

중국 동방싱크탱크 대표단, 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 방문

남원시 바이오 산업연구원(이하 연구원)은 지난 19일 중국 동방싱크탱크 대표단과 남원 바이오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 확대와 글로벌사업 발굴을 위한 중장기 교류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전북테크노파크 초청으로 전북을 찾은 중국 동방싱크탱크 정보과학연구원 치칭 집행원장, 김영수 선임고문, 김학근 한국분원 대표 등이 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을 방문하면서 마련됐다.

동방싱크탱크 정보과학연구원은 중국 지방정부와 기업을 대상으로 지역발전 전략, 산업기획, 투자유치 및 프로젝트 실행 등을 지원하는 전문 연구기관이, 연구원은 이날 기관 현황 및 주요 사업을 소개하고 남원 바이오산업의 경쟁력과 기업지원 기반을 공유하는 한편, 중국과의 실질적인 산업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연구원은 △글로벌 B2B 사업기획 및 비즈니스 모델 발굴 △중국 현지 글로벌 기업과 연계한 수출 확대 △중국 기업과의 연구개발 및 기술교류 △중국 기업의 국내 유치 등 중장기적인 사업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 이를 통해 남원 바이오기업이 중국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실질적인 통로를 마련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양측은 보유한 네트워크를 활용해 중국 현지 기업과 남원 바이오기업 간 매칭메이킹을 통한 상호 교류 기회와 수요를 발굴하고, 기업 간 네트워킹을 기반으로 수출 확대, 공동 프로젝트 및 연구개발 등 실질적인 사업으로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기관과 기업 등 참여 주체 간 역할과 책임을 구체화하고,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한 거버넌스를 바탕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공동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이영철 연구원장은 "이번 만남은 중국 현지 네트워크와 남원 바이오산업의 역량을 연결하고 실질적인 연계 가능성을 확인하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동방싱크탱크와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수출 확대와 연구개발·기술교류, 공동 프로젝트 발굴 등 다양한 가능성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사)순창군귀농귀촌협의회는 25일 국민체육센터에서 관내 귀농귀촌인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귀농귀촌 어울림 한마당'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순창군, 귀농귀촌 어울림 한마당 성료

순창군 귀농귀촌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착 경험과 정보를 나누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소통과 화합을 다졌다.

(사)순창군귀농귀촌협의회는 25일 국민체육센터에서 관내 귀농귀촌인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귀농귀촌 어울림 한마당'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역에 정착한 귀농귀촌인들이 서로의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교류를 활성화하는 한편,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유대감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개회식과 민속경기, 노래자랑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조동옥 순창군귀농귀촌협의회장의 개회 선언으로 시작된 행사에서는 각 지역 회원들이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여 안부를 나누고 귀농귀촌 과정에서 겪은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며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오후에는 각 지회가 참여하는 민속경기와 노래자랑이 펼쳐지며 행사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렸다.

훌라후프와 고리걸기, 한궁 등으로 진행된 민속경기에서는 지회별 참가자들이 선의의 경쟁을 펼쳤으며 회원들은 응원과 박수를 보내며 함께 즐겼다.

이어진 노래자랑에서는 각 지회를 대표해 무대에 오른 참가자들이 숨겨둔 끼와 재능을 선보이며 행사장의 열기를 더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서 '전북4-H연합회 경진대회' 개최

전북특별자치도와 남원시는 25일부터 26일까지 남원시 춘향골체육관에서 전북4-H연합회원과 관계자 200여 명이 참여하는 '제48회 전북특별자치도 4-H연합회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경진대회는 전북 청년농업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4-H 이념을 실천하며 농업 현장에서 쌓아온 성과를 공유하고, 회원 간 정보교류와 화합을 통해 미래농업을 이끌어갈 청년농업인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농업·농촌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농업인들이 서로의 영농 경험과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경진 및 교육·체험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며 농업기술과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전북 농업의 미래를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또한 이번 행사는 남원시에서 개최되는 만큼 지역 농특산물과 농업 현장을 알리고, 청년농업인이 지역농업의 주체로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기회가 됐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공약이행 평가단 35명 위촉

남원시는 25일, 민선 9기 공약실천계획 수립 과정에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공약 이행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공약이행 평가단 35명을 위촉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평가단은 민선 9기 공약실천계획 조정안에 대한 심의·승인, 공약실천계획 점검, 개선방안 제안 등의 역할을 수행, 평가단은 공개모집에 참여 의향을 밝힌 시민 153명 가운데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한 무작위 추출과 전화면접을 거쳐 35명이 선정됐다.

첫 회의에서는 양충모 시장이 평가단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으며,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으로 공약이행 평가단 역량강화 교육과 분임 구성, 분임별 토의가 진행, 시는 앞으로 9월 8일과 15일 두 차례 추가 회의를 통해 공약실천계획 조정안에 대한 설명과 분임별 숙의·토론, 최종 심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소식통

전국 말라리아 경보 발령 남원시, 주의 당부

남원시는 질병관리청의 전국 말라리아 경보 발령에 따라, 매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31주차(7.27.~8.2.)에 채집된 말라리아 매개모기(얼룩날개모기류)에서 삼일열 말라리아 원충 유전자가 검출됨에 따라, 전국에 말라리아 경보를 발령했다.

이에 남원시는 모기 물림 예방수칙을 각별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했으며, 말라리아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모기가 활발히 활동하는 야간 시간대 야외활동 자제 △야외 활동 시 밝은 색상의 긴소매 옷 및 긴 바지 착용 △모기 기피제 사용 및 방충망·모기장 활용 등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또한 말라리아 위험지역에 거주하거나 여행, 군 복무 후 의심증상(오한, 고열, 발한이 48시간 주기로 반복하며 구통, 구토, 설사 등 동반)이 나타나면 즉시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신속히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 군립도서관, 9월 독서의 달 프로그램 운영

임실군 군립도서관은 독서의 달(9월)을 맞아 '읽기예보: 오늘 읽음, 내일 음'이라는 주제로 주민들이 다채로운 독서 경험을 즐길 수 있도록 작가강연, 원데이클래스, 전시, 참여형 이벤트 등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9월 한달간 군립도서관(2개관)에서는 △영수증이벤트 '어쩌다 마주친 행운' △북큐레이션 '시를 잊은 그대에게' △듬북(BOOK) 드립 △연체자 특사를 운영할 계획이다.

특별프로그램으로는 임실에서 △'대화가 서툰 어른을 위한 말하기 수업'의 저자초청 북콘서트 △바닥화체험 '컬러풀도서관' △다독자의 서재 △출판사 연계 원화전시 △과월호잡지 무료배부 등을 운영한다.

오수에서는 △원데이클래스 '나만의 키캡 키링 만들기' △필사이벤트 '책 속 보물찾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전주매일 캠페인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황희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통루(廣通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인조 16년(1638)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정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어딜 팔(八)자 모양을 한 팔작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여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툇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후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구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글: 문화재청 제공〉